

『東醫寶鑑』 ‘中暍中熱之辨’에 대한 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容範^{*}

略論 『東醫寶鑑』 ‘中暍中熱之辨’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容範

『東醫寶鑑』根據『醫學正傳』，將暑證分成中暍和中熱兩類，『醫學正傳』的原文又引用了『金匱要略』暍病條文。但是『金匱要略』的暑證分類與『醫學正傳』不同，對脈與病因的說明亦不同，故雖然『醫學正傳』引用了『金匱要略』的文章，但其內容完全不一樣。『醫學正傳』的觀點，是將暑證分成內傷虛證和外感實證兩類。『東醫寶鑑』既尊從了『醫學正傳』的分類方法，又記述了東垣的分類方法。『醫學正傳』對暑證的分類和東垣的不同。『醫學正傳』將暑證分成中暍(中暑: 清暑益氣湯證)和中熱(白虎湯證)，而李東垣分成中暑(陰證: 大順散證)和中熱(陽證: 蒼朮白虎湯證)。

但是『東醫寶鑑』雖引用了李東垣的分類方法，又變更了處方中的部分內容，即中暑用蒼朮白虎湯之發散法，中熱用人蔘白虎湯之補元氣法。這表示『東醫寶鑑』既將暑證分成內傷虛證和外感實證，又附帶採用了李東垣的陰暑陽暑的分類方法。

Key Words: 中暍, 中暑, 中熱, 內傷虛證, 外感實證.

I. 서론

『東醫寶鑑』暑門에서는 中暍과 中熱을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中暍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하나는 仲景『傷寒論』중에 나오는 中暍과 中熱의 조문을 인용하여, 中暍은 中暑로서 청서익기탕 등의 보익하는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고, 中熱은 熱病으로서 백호탕 등의 淸涼한 처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東垣의 학설을 인용하여 中暑와 中熱을 구분하고, 中暑에는 蒼朮백호탕 육화탕 이향산 등을 사용하며, 中熱에는 人蔘백호탕 죽엽석고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 인용하고 있는 『醫學正傳』에서는 東垣이 暑證을 그늘진 곳에서 피서하다

생긴 陰暑, 즉 中暑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노동하다 생긴 陽暑, 즉 中熱(中暍)의 두 종류로 나눈 것을 비판하고 있다.¹⁾

그렇다면 『東醫寶鑑』에서 『醫學正傳』을 인용하면서도 東垣의 학설을 신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醫學正傳』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李東垣의 학설을 비판하였을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일이 원전과 대조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暑證의 분류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暑證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교신저자: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730-0668, ybl@mail.sangji.ac.kr

1)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p. 71-72.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東醫寶鑑』 暑門의 ‘中暍中熱之辨’에 나오는 『醫學正傳』 인용문과 李東垣의 인용문, 그리고 이의 근거가 되는 『醫學正傳』 『醫經溯回集』 『金匱要略』 『醫部全錄』의 관련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句讀과 해석

句讀는 底本을 따랐으나, 일부 저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저자의 견해대로 하였다. 해석은 逐字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III. 본론

『東醫寶鑑』의 ‘中暍, 中熱之辨’은 크게 두 인용문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醫學正傳』의 인용문이고, 다른 하나는 李東垣의 인용문이다. 그런데 『醫學正傳』 인용문에는 다시 張潔古 李東垣 王履 등의 인용문이 있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의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1. 『東醫寶鑑』의 『醫學正傳』 인용문과 李東垣 인용문

1) 『醫學正傳』 인용문

[원문]²⁾

仲景傷寒論中, 一證曰中暍, 卽中暑也. 脉虛而微弱, 煩渴引飲, 體熱自汗. 宜清暑益氣湯等補益之劑. 一證曰熱病, 卽中熱也. 脉洪而緊盛, 頭痛身熱, 口燥心煩,

2) 許浚 著. 元秦喜 외 8人 點校. 精校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p. 641-642.

宜白虎湯等清涼之劑. (<正傳>).

[해석]

仲景의 傷寒論에서는 하나의 證을 中暍이라고 하였는데, 즉 中暑이다. 맥이 허하면서 미약하고 번갈하여 물을 마시고자 하며, 몸에서 열이 나고 自汗이니, 청서익기탕 등의 보익하는 약제를 써야 한다. 다른 하나의 證은 熱病이라고 하는데, 즉 中熱이다. 맥이 홍하면서 緊盛하고, 頭痛 身熱 口燥 心煩 등의 증상이 있으니, 백호탕 등의 清涼한 약을 써야 한다.

[按]

여기에서는 『醫學正傳』의 문장을 인용하여, 暑證을 中暍(中暑)와 中熱로 나누고, 中暍은 虛證으로 청서익기탕을 주며, 中熱은 實證으로 백호탕을 준다고 하였다.

2) 李東垣 인용문

[원문]³⁾

靜而得之爲中暑. 中暑者, 陰證, 當發散也. 或避暑於深堂大厦得之, 其證必頭痛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而煩心, 肌膚大熱無汗, 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陽氣不得伸越, 宜蒼朮白虎湯(方見寒門), 或六和湯加羌活川芎蒼朮或二香散.<<東垣>>

動而得之爲中熱, 中熱者, 陽證, 爲熱傷元氣也. 若行人或農夫於日中勞役得之, 其證必苦頭痛發躁熱, 惡熱,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泄, 無氣以動, 乃爲天熱外傷肺氣, 宜人參白虎湯, 竹葉石膏湯(二方並見寒門).<<東垣>>

[해석]

가만히 있다가 생긴 병은 中暑라고 하는데, 中暑는 陰證이니, 마땅히 발산해야 한다. 혹 그들이 깊은 대청마루에서 무더위를 피하다가 병이 나면 그 병은 반드시 頭痛 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 煩心 肌膚大熱 無汗 등의 증상이 나타나니, 방안의 서늘한 그들의 차가운 기운이 막아서 온몸의 陽氣가 펼쳐지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창출백호탕을 사용하거나 육화탕에

3) 許浚 著. 元秦喜 외 8人 點校. 精校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p. 642.

강할 천궁 창출을 가하여 쓰거나 혹은 이향산을 사용한다.

활동하다가 생긴 병은 中熱이라고 하는데, 中熱은 陽證이니, 熱이 元氣를 손상한 것으로, 만약 행인 혹은 농부가 햇볕 가운데에서 노역을 하다가 병이 난 것이라면, 그 병은 반드시 두통으로 괴롭고 躁熱을 발하며, 惡熱하고, 肌膚를 문지르면 매우 따듯하고, 반드시 목이 크게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며, 땀이 크게 나고, 움직일 기운도 없으니, 바로 더운 기후가 외부에서 肺氣를 손상한 것으로, 인삼백호탕이나 죽엽석고탕을 사용한다.

[按]

『東醫寶鑑』의 李東垣 인용문에서는 暑證을 陰證인 中暑와 陽證인 中熱로 구분하고, 中暑는 발산해야 하므로, 창출백호탕이나 육화탕에 강할 천궁 창출을 가한 것, 혹은 이향산을 쓴다고 하였으며, 中熱은 열이 元氣를 손상한 것으로, 인삼백호탕이나 죽엽석고탕을 쓴다고 하였다.

2. 『醫學正傳』의 中暑

[원문]⁴⁾

『內經』曰：因于暑，汗，煩則喘喝，靜則多言。潔古曰：靜而得之爲中暑，動而得之爲中熱。中暑者陰證，中熱者陽證。東垣曰：暑熱之時，無病之人，或避暑于深堂大廈得之者，名曰中暑，其病必頭痛惡寒，身形拘急，肢節疼痛而煩心，肌膚大熱無汗，爲房室之陰寒所遏，使周身之陽氣不得伸越，大順散等熱藥主之。若行人或農夫，于日中勞役得之者，名曰中熱，其病必苦頭痛，發躁熱惡熱，捫之肌膚大熱，必大渴引飲，汗大泄，無氣以動，乃爲大1)熱外傷肺氣，蒼朮白虎等涼劑主之。王履曰：暑熱之氣一也，皆夏月中傷其邪而爲病焉，豈以一暑熱分爲陰陽二證而名之耶？其避暑于深堂大廈，及恣食藏冰瓜果寒冷之物，正經所謂口得寒物，身犯寒氣之病耳，自當同秋冬卽病陰證傷寒處治，不可名中暑

也。此論固是，抑亦有未悉之旨也歟。愚按：仲景傷寒論中，一證曰中暈，卽中暑也，虛而微弱，煩渴引飲，體熱自汗，此蓋得勞役體虛而暑邪干衛之候，是宜東垣清暑益氣湯等補益之劑治之而愈。一證曰熱病，卽中熱也，脈洪而緊盛，頭疼身熱，口燥心煩，此蓋得之于冬感寒邪，鬱積至夏而發，乃挾暑而成大熱之候，是宜黃連白虎解毒等湯清涼之劑調之而愈。曰中暑者，陰證內傷之爲病也；曰中熱者，陽證外感之爲病也。曰陰曰陽，豈不于斯而明辨之乎，學者宜再思之。

[교감]

1) 大: 大는 天의 오자.

[해석]

『內經』에서는 “暑邪에 손상되면 땀이 나며, 번갈아 생기고, 숨이 가빠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며, 번갈아 없을 때에는 말을 많이 한다.”라 하였고, 장결고는 “가만히 있다가 병이 난 것은 中暑라고 하고, 활동하다가 병이 난 것은 中熱이라고 하는데, 中暑는 陰證이고, 中熱은 陽證이다.”라고 하였다.

李東垣은 “여름 무더위가 심할 때에 평소 병이 다른 병이 없던 사람이 혹 그들이 깊은 대청마루에서 무더위를 피하다가 병이 난 것을 中暑라고 하는데, 그 병은 반드시 頭痛 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 煩心 肌膚大熱 無汗 등의 증상이 나타나니, 방안의 서늘한 그들의 차가운 기운이 막아서 온몸의 陽氣가 펼쳐지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대순산 등의 따듯한 약으로 치료한다. 만약 행인 혹은 농부가 햇볕 가운데에서 노역을 하다가 병이 난 것이라면 中熱이라 하는데, 그 병은 반드시 두통으로 괴롭고 躁熱을 발하며, 惡熱하고, 肌膚를 문지르면 매우 따듯하고, 반드시 목이 크게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며, 땀이 크게 나고, 움직일 기운도 없으니, 바로 더운 기후가 외부에서 肺氣를 손상한 것으로, 창출백호탕 등의 서늘한 약으로 치료한다.”라 하였다.

왕안도가 “暑熱의 氣는 하나로, 모두 여름에 그 邪氣에 손상되어 병이 된 것이니, 어찌 하나의 暑熱을 陰陽 두 개의 證으로 나누어 이름을 붙일 것인가? 그 깊은 대청 마루의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거나, 저장해

4)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성보사. 1986. pp. 71-72.

둔 얼음이나 수박 등의 과일을 함부로 먹은 것은 正經에서 말한 바 ‘입은 차가운 음식물을 먹고, 몸은 차가운 기운에 침범당했다’는 병일 뿐이니, 당연히 가을이나 겨울에 사기에 감촉되어 바로 발병한 陰證 傷寒과 같이 치료해야 할 것이요, 中暑로 이름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라 하니, 이러한 견해가 참으로 옳으나 아직 다하지 못한 뜻이다.

내가 생각건대 仲景의 傷寒論 중에서 하나의 證은 中暈이라고 하였으니, 즉 中暑이다. 그 증상은 맥이 虛하면서 微弱하고, 煩渴하여 물을 마시고자 하며, 몸에서는 열이 나고, 自汗이 나는데, 이는 모두 勞役으로 몸이 허해진 상태에서 暑邪가 衛氣를 침범한 증후이다. 이는 마땅히 李東垣의 清暑익기탕 등의 보익하는 약제로 치료하면 낫는다. 다른 하나의 證은 熱病이라고 하는데, 즉 中熱이다. 그 증상은 맥이 洪하면서 緊盛하며, 頭疼 身熱 口燥 心煩 등이니, 이는 모두 겨울에 寒邪에 감촉되었다가 몸에 억울되어 쌓여 있다가 여름이 되어 발생하는데, 濕을 꺼서 大熱을 이룬 증후이다. 이는 마땅히 황련탕, 백호탕, 해독탕 등의 清涼한 약제로 조치하면 낫는다. 中暑라고 한 것은 陰證內傷이 병이 된 것이며, 中熱이라고 한 것은 陽證外感이 병이 된 것이니, 陰이라고 하고, 陽이라고 한 것이 어찌 이에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겠는가? 학자는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按]

1. 『東醫寶鑑』의 『醫學正傳』 인용문과의 비교

1) 中暈(中暑)의 병인병기, 즉 “此蓋得勞役體虛而暑邪干衛之候”라는 말과, 中熱의 병인병기 즉 “此蓋得之于冬感寒邪, 鬱積至夏而發, 乃挾暑而成大熱之候”라는 말이 빠져 있다.

2) 中熱의 처방이 『東醫寶鑑』에서는 백호탕만 나와 있는데, 『醫學正傳』에서는 황련탕 해독탕이 더 있다.

3) 『東醫寶鑑』에서는 『醫學正傳』에 나오는 中暑(中暈)가 陰證內傷의 虛證이고, 中熱은 陽證外感의 實證이라는 결론적인 말이 없다.

2. 『東醫寶鑑』의 東垣 인용문과의 비교

1) 이곳에서는 張潔古의 李東垣의 문장이 구분되

어 있으나, 『東醫寶鑑』에서는 東垣 인용문과 합쳐져 있다.

2) 『東醫寶鑑』 인용문에는 中暑조문에 ‘當發散也’라는 말이 더 있고 中熱조문에 ‘爲熱傷元氣也’라는 말이 더 있다.

3) 처방에서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이곳에서는 中暑에 대순산, 中熱에는 창출백호탕을 쓰라고 하였는데, 『東醫寶鑑』 인용문에서는 中暑의 처방으로 창출백호탕이나 육화탕에 강활 천궁 창출을 가한 것, 혹은 이향산을 제시하였으며, 中熱의 처방으로 인삼 백호탕이나 죽엽석고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려고 『東垣十書』를 찾아보았으나, 『東垣十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3. 『醫經溯回集』의 中暑中熱之辨

[원문⁵⁾]

潔古曰：靜而得之爲中暑，動而得之爲中熱。中暑者陰證，中熱者陽證。東垣云：避暑熱於深堂大廈得之者，名曰中暑，其病必頭痛惡寒，身形拘急，肢節疼痛而煩心，肌膚大熱無汗，爲房室之陰寒所遏，使周身陽氣不得伸越，大順散主之。若行人或農夫，于日中勞役得之者，名曰中熱，其病必苦頭痛，發躁熱惡熱，捫之肌膚大熱，必大渴引飲，汗大泄，無氣以動，乃爲天熱外傷肺氣，蒼朮白虎湯主之。竊謂暑熱者，夏之令也，火行于天地之間，人或勞動或飢餓，元氣虧乏，不足以御天命亢極，于是受傷而爲病，名曰中暑，亦名曰中熱，其實一也。今乃以動靜所得分之何哉？夫中暑熱者，固多在勞役之人，勞役則虛，虛則邪入，邪入則病。不虛則天令雖亢，亦無由以傷之。彼避暑于深堂大廈，得頭疼惡寒等證者，蓋傷寒之類耳，不可以中暑名之。其所以煩心與肌膚大熱者，非暑邪也，身中陽氣受陰寒所遏而作也。既非暑邪，其可以中暑名乎。苟欲治之，則辛溫輕揚之

5) 王履 著. 章升懋 點校.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 56-58.

劑發散可也。夫大順散一方，甘草最多，乾薑杏仁肉桂次之。除肉桂外，其三物皆妙者，原其初意，本爲冒暑伏熱，引飲過多，脾胃受濕，嘔吐，水穀不分，臟腑不調所立，故甘草乾薑，皆經火炒熟。用肉桂而非桂枝，蓋溫中藥也。內有杏仁，不過取其能下氣耳。若此藥治靜而得之之證，吾恐不能解表，反增內煩矣。今之世俗，往往不明，類曰夏月陰氣在內，大順散爲必用之藥。吁！其誤也不亦甚歟！夫陰氣非寒氣也，蓋夏月陽氣發散于外，而陰氣則在內耳，豈宜視陰氣爲寒氣而用溫熱之藥乎？陰寒爲寒，何以夏則飲水乎？其蒼朮白虎湯雖宜用，然亦豈可視爲通行之藥，必參之治暑諸方，隨所見之證而用之，然後合理。若夫所謂靜而得之之證，雖當暑月，即非暑病，宜分出之，勿使後人有似同而異之惑。

[해석]

장결고는 “가만히 있다가 병이 난 것은中暑라고 하고, 활동하다가 병이 난 것은中熱이라고 하는데,中暑는 陰證이고, 中熱은 陽證이다.”라고 하였다. 東垣은 “그늘이 깊은 대청마루에서 무더위를 피하다가 병이 난 것을中暑라고 하는데, 그 병은 반드시 頭痛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 煩心 肌膚大熱 無汗 등의 증상이 나타나니, 방안의 서늘한 그들의 차가운 기운이 막아서 온몸의 陽氣가 펼쳐지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대순산으로 치료한다. 만약 행인 혹은 농부가 햇볕 가운데에서 노역을 하다가 병이 난 것이라면 中熱이라 하는데, 그 병은 반드시 두통으로 괴롭고 躁熱을 발하며, 惡熱하고, 肌膚를 문지르면 매우 따듯하고, 반드시 목이 크게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며, 땀이 크게 나고, 움직임 기운도 없으니, 바로 더운 기후가 외부에서 肺氣를 손상한 것으로, 창출백호탕으로 치료한다.”

가만히 생각건대, 暑熱이라는 것은 여름의 기후이다. 火가 天地之間에 행해지는데, 사람이 혹 노동을 하거나 밥을 굶는다면, 元氣가 손상되어 기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된다. 이에 손상을 받아 병이 된 것을中暑라 하는데, 또 中熱이라고도 하니,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動靜으로 이를 구분하려는 것은 어째서인가? 일반적으로

로 暑熱에 적중된 것은 참으로 노역을 하는 사람에게 많은데, 노역을 하면 虛해지고, 虛해지면 邪氣가 들어와서 병이 된다. 虛하지 않다면 계절의 기후가 비록 극성을 부리더라도 손상을 당할 이유가 없다. 조금 전에 말한 대청 마루의 깊은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다가 頭疼 惡寒 등의 證이 생긴 것은 대개 傷寒의 종류일 뿐이요,中暑로서 명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煩心과 肌膚에 大熱이 나는 이유는 暑邪 때문이 아니요, 身中の 陽氣가 陰寒한 기운에 막혀서 일어난 것이다. 이미 暑邪가 아니니,中暑로 명명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를 치료하고자 한다면 辛溫한 약성을 가진 輕揚하는 약제로 發散하는 것이 좋다.

대저 大順散 한 처방에는 감초가 가장 많고 건강행인 육계가 다음인데, 육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약제를 모두 炒하는 것은 그 원래의 뜻을 찾아보면, 본래 冒暑에 열이 잠복하여 물을 과다하게 마셔 脾胃가 濕을 받아 嘔吐하고 물과 곡식이 구분되지 않고, 臟腑가 조절되지 않은 것이므로, 감초 건강을 모두 불에다 炒하여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육계를 쓰고 계지를 쓰지 않는 것은 아마 溫中하는 약이기 때문일 것이다. 안에 杏仁이 있는 것은 下氣하는 작용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이 약으로 ‘靜而得之’의 證을 치료한다면, 내는 解表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內煩을 증가시킬까 두렵다. 지금 세속에서 자주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 말하기를 夏월에 陰氣가 안에 있으면 大順散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하니, 아! 그 잘못됨이 또한 너무 심하지 않은가?

대저 陰氣는 寒氣가 아니다. 대개 夏월에 陽氣는 밖으로 발산되고 陰氣는 안에 있을 뿐이니, 어찌 陰氣를 寒氣로 보고 溫熱한 藥을 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陰이 결과적으로 寒이 된다면 어떻게 여름에 물을 마시겠는가? 창출백호탕은 비록 마땅히 써야 할 것이나, 또한 어찌 通行하는 약으로 보아 暑를 치료하는 처방에 반드시 참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타나는 證을 따라서 쓴 다음에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만약 이른바 ‘靜而得之’의 證이라면 비록 暑월에 해당하더라도 暑病이 아니니, 마땅히 별도로 가려내

야 할 것이요, 後人으로 하여금 흡사 같은 듯하나 다른 의혹을 두게 하여서는 안 된다.

[按]

이상을 살펴보면 暑證을 최초로 陰陽으로 구분한 사람은 張潔古이다. 즉 張潔古는 가만히 있다가 병을 얻은 陰證인 中暑와 활동하다가 병을 얻은 陽證인 中熱로 구분하였다.

李東垣은 스승인 張潔古의 학설을 더욱 발전시켜 陰證은 여름에 더위를 피하여 그늘진 곳에서 쉬다가 발병한 것으로 陰寒한 기운이 몸의 陽氣를 抑鬱시켜 발생한 것이며, 陽證은 띄야벌에서 활동하다가 발병한 것으로 여름의 大熱이 폐를 손상한 것이라고 하고, 각각 대순산과 창출백호탕 등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 내용에 대한 기술은 위의 『醫學正傳』과 같고, 『東醫寶鑑』 東垣 인용문과는 다르다.

王履는 張潔古와 李東垣이 분류한 中暑는 陰證이고 中熱은 陽證이라는 학설을 논박하여, 陰證인 中暑는 傷寒의 종류이고, 暑熱로 인한 병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세속에서 많이 쓰는 대순산도 발한제가 아니라 온중제이기 때문에 心煩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中熱의 처방으로 제시된 창출백호탕에 대하여서도, 증상을 보고 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처방은 아니라고 하였다.

虞搏은 王履의 학설을 받아들여 暑證의 범주에서 음침한 장소와 한랭한 음식물에 손상된 것을 傷寒의 종류에 속한다 하여 배제시키고, 『金匱要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노역으로 허약해져 생긴 內傷虛證인 中暈 즉 中暑와 겨울에 감촉된 寒邪가 잠복되어 化熱된 것이 여름에 濕을 끼고 발병하는 外傷熱病(實證) 즉 中熱로 대별하였다.

이러한 虞搏의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기 위하여 『金匱要略瘧濕暈病第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金匱要略』의 暈病

[原文]⁶⁾

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① 太陽中暈,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細, 紮遲, 小便已, 洒洒然毛聳, 手足逆冷, 小有勞, 身即熱, 口開, 前板齒燥. 若發其汗, 則惡寒甚; 加溫鍼, 則發熱甚; 數下之, 則淋甚.

② 太陽中熱者, 暈是也. 汗出惡寒, 身熱而渴, 白虎加人參湯主之.

白虎加人參湯方

知母六兩, 石膏一斤 碎綿裹, 甘草二兩 炙, 粳米六合, 人參三兩

上五味, 以水一斗, 煮米熟湯成, 去滓, 溫服一升, 日三服.

③ 太陽中暈, 身熱疼重而脈微弱, 此以夏月傷冷水, 水行皮中所致也, 一物瓜蒂湯主之.

瓜蒂湯方

瓜蒂二十个

上銼, 以水一斗^①, 煮取五合, 去滓, 頓服.

[解釋]

太陽中暈의 증상은 열이 나며 추워하고 몸이 무거우며 아프고, 그 맥이 弦細, 紮遲하며, 소변을 눈 다음 몸이 오싹해지면서 숨털이 일어서고, 손발이 싸늘해지며 조금만 힘든 일을 해도 열이 나며 입을 벌리므로 앞니가 마른다. 만약 땀을 내면 추워하는 것이 심해지며 溫鍼을 놓으면 열이 심하게 나고 자주 설사시키면 淋症이 심해진다.

太陽中熱이라는 것은 暈이 이것이다. 땀이 나고 추워하며 몸이 뜨거우면서 목이 마르는 데는 백호가인삼탕을 쓴다.

백호가인삼탕방

지모6냥, 석고 1근(부스러뜨려 면으로 싼 것), 감초 2냥, 뽕쌀6홉, 인삼3냥.

위의 5가지 약을 물 1말에 넣고 달여, 쌀이 익고 다 달여지면 찌꺼기를 버리고, 1되씩 하루 세 번 따뜻하게 해서 먹는다.

太陽中暈에 몸에 열이 나면서 육신거리고 무거운데 맥이 미약한 것은 이는 여름철에 찬물에 상하여

1990. pp. 34-35.

水가 피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므로 1가지 약물로 구성된 瓜蒂湯을 쓴다.

과채탕방

과채 20개.

위의 약을 썰어 물 1말에 넣고 달여 5홉이 되면 찌꺼기를 버리고 한 번에 다 먹는다.

[按]

첫 번째 조문은 中暈의 주요 증상과 誤治하였을 때의 變證을 설명하고 있다. 暑邪도 六淫의 하나이므로, 太陽經으로부터 시작되어 發熱惡寒의 증상이 나타난다.⁷⁾ 太陽이 一身의 表를 주관하기 때문에 太陽中暈이라고 한 것이다.⁸⁾ 身重疼痛의 증상은 暑邪에 濕이 끼어 있음을 나타낸다.⁹⁾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쉽게 땀이 나서 陽氣와 陰液이 잘 손상되므로, 脈이 弦細하거나 芤遲하다.¹⁰⁾ 그러나 이러한 氣血이 虛弱한 脈象은 환자의 평소 체질과 邪氣가 침입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¹¹⁾ 太陽經은 안으로 膀胱과 연결되고 밖으로는 皮毛에 반응이 나타나므로, 소변을 보고 난 뒤에 열이 오줌을 따라 나가면 일시적으로 陽氣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형체가 오싹거리며 숨털이 일어난다.¹²⁾ 暑邪가 陽氣를 손상하여 陽氣가 四肢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手足이 厥冷하고, 津과 氣가 다 손상되어 체력이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조금만 노동을 하여도 陽氣가 『內經』에 나오는 ‘煩勞則脹’¹³⁾의 기전에 의하여 몸에서는 바로 열이 나며, 內熱이 상승하므로 입을 열어 기를 내보내고, 열

이 진액을 손상하여 口舌을 윤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앞니가 마른다.¹⁴⁾ 本證에 表證이 있는 것을 보고 발한시킨다면, 반드시 陽氣를 더 손상하여 惡寒이 심해질 것이며, 寒邪(手足厥冷)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함부로 溫鍼을 사용하면 暑邪를 도와 반드시 發熱이 더 극성해질 것이며, 口開 前板齒燥 등의 증상을 보고 안에 燥熱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攻下法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더욱 진액을 손상하게 되어 반드시 소변이 淋瀝하게 될 것이다.¹⁵⁾ 이 조문에는 治法이 없으나, 후세에는 東垣의 清暑益氣湯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처방은 升陽益氣除濕의 작용이 있어 元氣가 원래 虛한 사람이 暑濕에 감촉되어 陽氣를 소모한 경우에 효과가 있다. 만약 暑熱이 氣와 陰을 손상하고, 濕邪가 끼지 않았다면 王孟英의 清暑益氣湯을 사용하는데, 이 처방은 涼潤, 養陰生津하는 작용이 있다.¹⁶⁾

두 번째 조문은 暑邪에 손상되어 熱이 盛하게 된 것에 대한 證治를 설명하고 있다.¹⁷⁾ ‘暈’은 暑邪에 손상된 병으로, 이른바 ‘太陽中熱’은 暑熱에 손상되어 발생한 太陽證인 것이다.¹⁸⁾ 熱病이 여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暈’이라 한 것이고, 후세에는 ‘暑’라 불렀다.¹⁹⁾ 『素問生氣通天論』에 “因於暑, 汗”²⁰⁾이라 하였는데, 暑熱이 熏蒸하여 땀을 압박하여 밖으로 나게 하여 땀이 많이 나게 되면 衛氣가 허약해지고, 腠理가 성글게 되어 惡寒하게 된다.²¹⁾ 이것은 『傷寒論』 白虎加人參湯證에서 ‘時時惡風’ 혹은 ‘背微惡寒’

7)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108. “中暈即中暑, 暑亦六淫之一, 故先傷太陽而爲寒熱也。”

8)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1.

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4.

10)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4.

11)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1.

12)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4.

1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41.

14)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1.

15)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4.

1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4.

1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5.

1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5.

19)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1.

20)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39.

21)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1.

의 機制와 서로 같다.²²⁾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傷暑의 汗出惡寒은 반드시 먼저 汗出이 있고 나서 그 汗出 때문에 惡寒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表證의 惡寒發熱과는 다르다는 점이다.²³⁾ 中暈의 惡寒은 腠理가 開泄되어 汗出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고, 傷寒의 惡寒은 腠理가 閉塞되어 陽氣가 억울된 소치이다.²⁴⁾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惡寒은 太陽表未解도 아니고 少陰裏陽虛도 아니고, 陽明裏熱이 大盛한 것이므로, 전신에서 발열하며, 열이 심하면 진액이 손상되기 때문에 口渴引飲한다.²⁵⁾ 이 조문에서는 汗出과 口渴의 두 증상이 변증의 요점이 되는데, 傷寒에서 白虎湯을 사용하는 관건은 表證의 有無이고, 表證의 有無는 有汗과 無汗으로 판단한다. 이미 汗出이 있기 때문에 表證이 이미 풀어진 것이고, 口渴은 裏熱이 진액을 손상하였음을 나타낸다.²⁶⁾ 여기에서 또 주의하여야 할 점은 앞 조문에서는 暑에 濕이 끼서 생기는 太陽中暈에는 發熱惡寒의 表證이 있는데, 이 조문에서는 太陽中熱이라 하여 太陽證임을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증상인 汗出惡寒의 해석에 있어서는 表證이 아닌 裏證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暑濕에서는 表證이 있지만, 暑熱에서는 表證이 없이 바로 裏證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조문은 暑邪에 濕邪가 끼서 손상한 것에 대한 證治를 논술하고 있다. 暑邪에 손상되었으므로, 身熱이 있고, 濕邪가 끼 있으므로, 疼重하고, 暑濕이 陽氣를 손상하였으므로 脈이 微弱하다. 그 원인은 여름에 차가운 장소를 탐하고, 찬 것을 마시거나, 혹은 땀이 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서, 水가 피부 속을 운행하여 陽氣가 억압된 것이다.²⁷⁾ 瓜蒂는 苦寒하여

吐, 下시킬 수 있어 몸과 얼굴과 四肢의 水氣를 없애니, 水가 없으면 暑邪도 따라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되기에 장차 치료하지 않아도 스스로 풀리게 된다. 이것은 暑에 濕을 겸한 것에 대한 치료방법이다.²⁸⁾ 『醫宗金鑑』에서는 香薷飲과 大順散으로 發汗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²⁹⁾

5. 『醫部全錄』의 李東垣의 인용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東垣十書』에서 『東醫寶鑑』의 東垣 인용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醫學正傳』, 『醫經溯回集』의 東垣 인용문에는 분명히 나오므로, 과거의 『東垣十書』와 현재의 『東垣十書』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醫部全錄·暑門治暑宜順天時』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원문]³⁰⁾

當此之時, 無病之人, 亦或有二證: 或避暑熱納涼於深堂大廈得之者, 名曰中暑. 其病必頭痛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而煩心, 肌膚大熱無汗, 爲房室之陰寒所遏, 使周身陽氣不得伸越, 世多以大順散主之是也. 若行人或農夫于日中勞役得之者, 名曰中暈. 其病必苦頭痛, 發燥熱惡熱, 捫之肌膚大熱, 必大渴引飲, 汗大泄, 無氣以動, 乃爲天熱外傷肺氣, 蒼朮白虎湯主之. 潔古云: 動而得之爲中熱, 靜而得之爲中暑. 中暑者陰證, 當發散也. 中熱者陽證, 爲熱傷元氣, 非形體受病也.

[해석]

이러한 때에 병이 없는 사람에는 또한 두 가지 證이 있다. 혹 대청마루의 그늘에서 暑熱을 피하면서 서늘한 음식을 먹어서 병이 생긴 것은 中暑라고 한

22)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1.
 23)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5.
 2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5.
 25)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1.
 26)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11.
 27)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 35.

28)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108. “瓜蒂苦寒, 能吐能下, 去身面四肢水氣, 水去而暑無所依, 將不治而自解矣. 此治中暑兼濕者之法也.”
 29) 吳謙 等撰. 魯兆麟 等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80.
 30) 陳蒙雷 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六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 283-284.

다. 그 병은 반드시 頭痛 惡寒 身形拘急 肢節疼痛 煩心 肌膚大熱 無汗의 증상이 나타나니, 실내의 陰寒한 기운이 막아서 온몸의 陽氣가 펼쳐지지 못한 것으로, 세상에서 대부분 대순산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행인 혹은 농부가 햇볕 가운데에서 노역을 하다가 병이 난 것이라면 中暈이라 하는데, 그 병은 반드시 두통으로 괴롭고 躁熱을 발하며, 惡熱하고, 肌膚를 문지르면 매우 따뜻하고, 반드시 목이 크게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며, 땀이 크게 나고, 움직일 기운도 없으니, 바로 더운 기후가 외부에서 肺氣를 손상한 것으로, 창출백호탕으로 치료한다.

장결고가 말하기를, “활동하다가 생긴 병은 中熱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다가 생긴 병은 中濕이라고 한다.”라 하였다. 中濕은 陰證이니, 마땅히 발산해야 하고, 中熱은 陽證이니, 熱이 元氣를 손상한 것으로, 형체가 병을 받은 것은 아니다.

[按]

이 내용도 현재의 『東垣十書』 중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當發散也’ ‘爲熱傷元氣’ 등의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의 『醫學正傳』이나 『醫經溯回集』보다 『東醫寶鑑』 원문에는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醫學正傳』이나 『醫經溯回集』에서는 ‘中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곳에서는 ‘中暈’이라고 하여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IV. 고찰

『東醫寶鑑』의 ‘中暈中熱之辨’의 내용은 크게 『醫學正傳』 인용문과 東垣 인용문으로 되어 있다. 제목을 ‘中暈中熱之辨’이라고 달고, 『醫學正傳』의 인용문을 먼저 기술한 것으로 보면, 『東醫寶鑑』에서는 暑證을 『醫學正傳』의 분류대로 中暈 中熱로 구분하는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醫學正傳』의 내용은 『金匱要略』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金匱要略』의 내용이 『醫學正傳』과 같은지는 검토해보아야 한다.

우선 『金匱要略』에서 暈病을 中暈과 中熱로 구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暑邪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 제 2편의 편명은 瘧濕暈病이라 하여 暑邪로 인한 질병의 총칭으로 暈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暈病관련 조문이 모두 3개인데, 그중 첫 번째 조문과 세 번째 조문은 太陽中暈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조문은 太陽中熱에 대한 설명으로 표면상으로는 中暈과 中熱의 구분이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中暈은 두 조문에서 각각 ‘身重而疼痛’ ‘身熱疼重’이라 하여 모두 濕이 낀 것을 설명하고 있고, 中熱은 白虎加人參湯으로 치료하는 熱證을 설명하여,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太陽中熱에 대한 설명에서 太陽中熱이 暈이라고 하였으니, 『金匱要略』에서는 暑邪에 대한 총칭으로 中暈 혹은 暈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濕이 끼지 않은 熱證만을 가리켜 中熱이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金匱要略』에서는 虞搏이 주장하듯 暑病을 中暈과 中熱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金匱要略』에 나오는 中暈이 濕을 끼고 있다는 내용은 虞搏이 말한 中熱이 濕을 끼고 있다는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다음으로 맥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金匱要略』에서는 太陽中暈의 맥이 ‘弦細芤遲’ 혹은 ‘微弱’이라고 하였고, 太陽中熱의 조문에는 구체적인 맥상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처방이 백호가인삼탕인 것을 보면 脈이 洪大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호가인삼탕 증은 大汗出로 인하여 正氣와 津액이 급속히 소모되어 맥이 洪大하면서도 芤脈이 나타나고, 등골이 오싹한(背微惡寒) 증상이 있으므로³¹⁾, 虞搏이 주장하듯 實證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병의 원인에서 『金匱要略』에서는 中暈의 원인으로 ‘夏月傷冷水, 水行皮中’이라 하였는데, 이는 虞搏이 받아들이고 있는 王履의 학설, 즉 暑證에서 서늘한 음식물이나 음침한 장소로 생긴 것을 제외하는 학설과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暈과 中熱의 명칭

31) 李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임상온병학특강. 서울. 대성의 학사. 2001. p. 378.

사용의 문제, 中熱이 濕을 끼고 있는가의 문제, 병의 원인에 차가운 음식물의 섭취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문제, 脈象의 허실에 대한 문제 등에서, 『金匱要略』과 虞搏의 학설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虞搏은 『金匱要略』을 인용하여 中暈과 中熱로 暑證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虛證內傷과 實證外感으로 구별하여 『金匱要略』과는 별도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東醫寶鑑』의 의도는 무엇일까? 『醫學正傳』에서 暑證을 中暈 中熱의 內傷虛證과 外感實證을 구분한 것을 받아들이고, 東垣이 中暑의 처방으로 제시한 大順散을 『醫學正傳』의 견해대로 삭제한 것을 보면, 暑證의 범위는 철저하게 虞搏의 견해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즉 暑證을 여름에 노역으로 허해진 상태에서 暑邪가 衛氣를 손상하여 발생한 內傷虛證의 청서익기탕증과 겨울에 침입한 寒邪가 잠복하여 化熱되어 여름에 발병한 外感實證인 백호탕증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시 東垣의 인용문을 기술하여 中暑와 中熱로 구분하면서 처방은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달리 기재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실수로 창출백호탕을 中熱이 아닌 中暑의 치료 처방으로 기재하였다면, 뒤의 육화탕 가감방이나 이향산, 그리고 中熱의 처방으로 인삼백호탕이나 죽엽석고탕을 같이 실수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에서는 분명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처방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東垣은 中暑가 陰證으로 발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창출백호탕과 육화탕가감방, 그리고 이향산을 발산하는 약으로 본 듯하고, 뒤의 中熱은 陽證으로 熱이 元氣를 손상한 것으로 보아, 보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인삼백호탕 죽엽석고탕을 치료처방으로 제시한 듯하다.

즉 『東醫寶鑑』에서는 暑證을 淸暑益氣湯證의 內傷虛證과 白虎湯證의 外感實證으로 구분하면서도, 여름에 생기기 쉬운 냉방병에 창출백호탕 등으로 발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열이 元氣를 손상하였을 때 인삼백호탕 등으로 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東醫寶鑑』에서 暑證을 中暈과 中熱으로 구분한 것은 『醫學正傳』에 근거한 것인데, 『醫學正傳』은 『金匱要略』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金匱要略』에서는 暑病을 中暈과 中熱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金匱要略』에서는 中暈이 濕을 끼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醫學正傳』에서는 中熱이 濕을 끼고 있다고 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脈에 있어서도 『金匱要略』의 中熱에는 脈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제시된 처방이 백호가인삼탕인 것으로 보아, 결코 『醫學正傳』에서 주장하듯 實證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병의 원인에 있어서 『金匱要略』에서는 中暈이 ‘夏月傷冷水, 水行皮中’이라 하였는데, 이는 『醫學正傳』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王履의 학설, 즉 暑證에서 서늘한 음식물이나 음침한 장소로 생긴 것을 제외하는 학설과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醫學正傳』의 내용은 『金匱要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醫學正傳』에서 暑證을 內傷虛證의 淸暑益氣湯證과 外感實證의 白虎湯證으로 구분한 견해를 받아들면서도, 東垣의 학설을 일부 취하여 蒼朮白虎湯으로 발산하는 방법과 人蔘白虎湯으로 元氣를 보하는 방법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1. 許浚 著, 元秦喜 외 8人 點校. 精校 東醫寶鑑. 서울. 한미의학. 2001.
2. 李劉坤 강의, 임진석 정리. 임상온병학특강. 서울. 대성의학사. 2001.

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4.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 吳謙 等撰, 魯兆麟 等點校. 醫宗金鑑.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6. 王履 著, 章升懋 點校.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7.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8.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9.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정보사. 1986.
10. 陳蒙雷 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第六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K C I